

#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수행 및 사회화와 행사의식 변화 - 최근 10년간 변화를 중심으로 -

## The Performance, Socialization and the Comparison of Generation Attitudes about the Family Rituals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장 상 옥\*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ang, Sang-Ock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level of the performance of family rituals and socialization of them, and to compare the change of the attitudes between daughter and mother generation.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in 1992 and 2002 from families living in Seoul. Housewives and university students from these familie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Most of the family performed the birthday parties, traditional rituals, and memorial days. The level of the performance of the birthday rituals, and rituals from western culture has increased for a decade. The socialization of the following family rituals is increasing: banquets for parents' 60th birthday, wedding anniversaries, employment ceremony, commencement ceremon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itude between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regarding performance of the family rituals between 1992 and 2002.

▲주요어(Key Words) : 가정행사 수행(the performance of the family rituals), 가정행사의 사회화 (the socialization of the family rituals), 가정행사에 대한 세대간 의식(generation attitudes about the family rituals)

### 1. 서 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가정측면에서는 개별가정의 가정생활문화를 전달하고 가족원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한편 사회측면에서는 그 사회의 생활문화를 전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가정적, 사회적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행사는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거치면서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되어 전통적으로 전승되던 일부 행사는 소멸되거나 변화되기도 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사가 등장하는 등 여러 면에서 많

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명절과 돌잔치의 외부화 비율이 근래 증가하는(국민일보, 2002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 2월 20일자) 등 행사의 장소가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가정행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가정 내의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가족의 단란시간을 확보해 주는 반면 이로 인한 가정 기능의 축소, 소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가사노동 문제에서부터 이의 수용에 필요한 사회 시설의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그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서구 문화의 유입을 기점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가정행사에 대한 의식면에서는 세대간 의식 차이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박혜인·신기영,

\* 주 저 자 : 장상옥 (E-mail : sojang@ggnu.ac.kr)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2001). 일부 가정행사의 의식에 대해 연령이 높은 세대는 대체로 전통적이나 연령이 낮은 세대는 근대적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의식 차이는 한 가정의 관리 측면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의식 차이는 가정행사의 존속에도 영향을 끼쳐 가정의 행사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정행사 전반에 대한 세대간 의식파악이 중요하게 된다. 가족원 중 특히 여성은 가정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생활문화의 계승자 역할을 해왔으므로 이들의 가정행사 의식에 따라 장래의 행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주부와 여대생 딸을 대상으로 한 가정행사 의식의 파악은 양 세대간 행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학 분야에서 수행된 가정행사 관련 연구(이길표, 1989; 이정우·김명나, 1990; 김계동·이영호, 1998; 이윤금, 1998; 박혜인·신기영, 2001; 박혜인·조은숙, 2001 등)는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전통행사의 실태 파악에 집중되어 있어 현대 가정생활에 새로이 등장한 행사는 거의 조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와 세대간 행사의식 차이 및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며, 가정행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드물다. 한편 가사노동의 사회화(이기춘 외, 1989; 문숙재외, 1991; 이정우 외, 1992)에서 행사가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일부에 한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에도 미흡하다. 또 실태 파악의 시점은 허성미·한재숙(1993)의 연구 등과 같이 대부분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정행사의 변화 정도 파악과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차를 둔 두 시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의 가정행사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한 부분으로 대도시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수행과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를 분석하며 가정행사의 주된 담당자인 어머니와 여대생의 세대간 가정행사 수행 의식의 변화 파악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가정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가정행사 문화와 세대간 가정행사 의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가정교육 측면에서는 현대 가정행사의 교육 방향 설정 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의 수행 정도 및 변화를 살펴본다.
- 2)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 및 변화를 살펴본다.
- 3)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의 수행에 대한 어머니와 딸의 의식 차이 및 변화를 살펴본다.

## II. 이론적 고찰

### 1. 가정행사의 정의와 범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의례, 가족/친

족의례, 가정의례, 가정행사(김계동, 이영호, 1998; 이길표, 1998; 박혜인, 신기영, 2001; 박혜인, 조은숙, 2001; 두산세계백과사전, 2001)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박혜인과 조은숙(2001)은 가족/친족의례는 가족 및 친족성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의례로 규정하고 의례의 주체에 따라 국가의례, 지역공동체 의례, 가족/친족의례로 분류하여 관혼상제, 출산의례(돌, 백일), 축하의례(회갑, 고회잔치), 세시의례, 신앙의례로 구분하였다. 또 김계동과 이영호(1998)는 의례를 일생과 관련된 일생의례, 생일의례, 신앙의례 외에 현대에 많이 이루어지는 집들이, 연말연시 모임 등의 현대의례를 포함시켰다. 한편, 사전적 정의(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2)에 의하면 가정행사는 가족성원의 탄생을 비롯한 성장에 따라서 행하는 인사(人事)에 대한 의례와 연중행사로서 각 가정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정의한다. 이러한 행사에는 탄생에 관련된 백일, 첫돌, 생일, 혼인, 환갑, 진갑, 고회, 회수, 미수 등이 있다. 연중행사는 상류 계급에서 유래된 것과 본래 서민의 생활행사인 것 등이 합쳐져서 근세 이후, 일반 가정의 행사로 된 것으로 설날, 대보름, 삼짇날, 단오, 유두, 칠석, 추석, 동지 등이 있다. 종교적인 행사는 그리스도교의 부활절, 크리스마스 등과 불교의 석탄절인 초파일 등이 있다.

한편 일본의 연구(宮崎祐子, 1992)에서는 가정행사를 전통행사, 인생의례, 탄생일, ~날, 축하행사, 서양적 행사로 나누고 전통적 행사에 설, 대보름, 추석 등, 인생행사에 백일, 돌, 성인의 날, 은혼식, 금혼식, 환갑·고회, 탄생일에는 가족원의 생일, ~날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경로의 날, 축하행사는 입학, 졸업, 건축 축하, 서양적 행사에는 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할로윈데이, 부활절, 크리스마스로 전통행사 뿐만 아니라 근래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서양 행사도 상당히 포함시켜 구분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주로 가정의례 또는 가정행사(family rituals)(Boassard & Boll, 1950; Wolin & Bennett, 1984; Bremen & Martinez, 1995; Pleck, 2000; Dickstein, 2002; Howe, 2002)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Pleck(2000)은 가정행사는 형식적인 구조와 상징적 행동이 포함되는 고도로 양식화된 문화적인 수행으로서 가족성원이 반복하여 행하는 행사로 정의하고 탄생일, 기념일, 축제일, 종교행사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발렌타인데이, 부활절, 독립기념일, 할로윈데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여러 행사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 중 서구에서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가정행사는 생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Imber-Black, 2002) 종교행사가 주축을 이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를 지칭하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가정의례와 가정행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이러한 행사를 가정행사로 지칭하며 편의에 따라 가정의례 용어도 같이 사용한다.

가정행사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선행

연구의 분류를 종합하여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행사를 포함한 오늘날 사회변화로 추가된 행사까지 대상으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행사를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고자 전통과 현대 행사로 대비시키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시되는 탄생행사를 포함하여 전통행사, 탄생행사, 현대가정행사로 구분한다. 전통행사는 해마다 관례로 행해지는 전승적 행사이므로, 탄생행사는 전통적으로 해오고 지금도 지속되므로 선택하였으며, 현대가정행사에는 근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입학, 졸업, 결혼기념일 등의 증가(김계동, 이영호, 1997)와 행사의 서구화(박혜인, 신기영, 2001)를 반영하여 크리스마스를 포함시켰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행사에는 설(신정, 구정), 대보름, 추석, 제사, 석가탄신일의 6가지, 탄생행사에는 백일, 돌, 환갑·고희, 부·모, 부·부, 자녀 생일의 8가지를, 현대가정행사에는 입학, 졸업, 취직, 집들이,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의 6가지로 구분하여 총 20가지의 가정행사를 조사하였다. 이 중 전통행사와 현대가정행사의 구분은 전승적으로 해왔는지의 여부와 현대에 추가되었는지에 기준을 두었다. 따라서 전통행사에는 세시풍속과 제사, 석가탄신일을 포함시켰는데, 설은 새해 첫날을 의미하며 연중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문화관광부, 2003)로,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음력설을 지내고 있으나 신정이 법정공휴일로 제정되어 통상 양력설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편의상 설에 포함시켜 전통행사로 분류하였다. 현대행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행사로 김계동·이영호(1977)의 구분을 따랐다.

## 2. 가정행사의 의의

가정행사는 인간의 생활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로 이 행동에는 사회적 관계와 상징적 요소들이 담겨 있다. 가정행사는 크게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주고 가정측면에서는 가족관계의 강화, 세대간 연결, 가족발달을 돕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행사(의례)의 사회적 의의를 보면 기존 사회의 가치를 확인시키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있다(박혜인·신기영, 2001; Cheal, 1988). 우리나라는 가족/친족행사를 사회질서의 기본 틀로 삼아 서구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차례와 그 밖의 가정행사가 사회생활의 큰 마디로서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여(박혜인·신기영, 2001) 우리의 사회질서가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또한 행사는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강화시키는데 김계동과 이영호(1998)는 인간가치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인간의 믿음이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을 조직하고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강화시킨다고 했다. 또한 Bossard와 Boll(1950)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족은 일종의 사회적 과정으로 가정행사는 가족의 유대를 발전시키게 되고 이를 통하여 사회 구성원임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한편, 가정측면에서는 가족관계 강화(Imber-Black, 2002;

Fiese et al., 2002), 세대 간 연결(Wolin & Bennett, 1984; Cheal, 1988; Meske, et al., 1994; Pleck, 2000; Imber-Black, 2002; Fiese et al., 2002), 가족발달의 기능이 있다. Dickstein (2002), Meske 외(1994)는 가정행사를 통하여 가족이 함께 하므로 가족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감정이 교환되므로 가족의 안정성과 가족의 접촉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Howe(2002)는 가정행사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므로 개별 가족원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크며 지속적이라고 한다. 즉, 가정행사 시 이루어지는 가족의 정기적인 모임은 가족원끼리 이야기할 기회를 증가시키고 또 이런 모임의 기억이 가족 성원의 미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또한 행사는 심리적 긴장을 해소시켜 주고 전환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재조정해 주기도 한다(박혜인·조은숙, 2001). Pleck(2000)은 가정행사가 집단간의 정체성과 단일성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특히, Wolin과 Bennett(1984)는 가족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공유감과 소속감을 주는 가정행사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가정행사는 과거 가족과 현재 가족을 연결시키는 고리다. Cheal(1988), Meske 외(1994), Black(2002)은 가정행사는 세대를 연결시키고 가족의 연속성과 가족의 능력을 장려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의 연속성을 준다고 한다. 또한 세대를 연결하므로 나이든 기성세대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가정행사는 가족의 기능과 가족구성원 개개의 발달에 중요하다(Dickstein, 2002). 가족원 중 자녀는 행사를 통하여 그 방식을 전수받으므로 사회화된(Pleck, 2000). 아울러 여러 사람이 모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서 자녀에게 교육적이라고 한다. 또한 Bennett 외(1988)는 가정행사는 자녀의 사춘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으며, Fiese 외(2002)는 가치 전달을 장려한다고 본다. 따라서 가정행사는 자신의 정체성, 관계의 연결, 소속감을 알게 해 주므로 가족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행사는 현대생활에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인 방법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를 찾고자 한다(Pleck, 2000).

반면, 가정행사에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 외에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는데 가정행사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부담 문제가 있다. 먼저 가정행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가사노동이 요구되며(Meske 외, 1994),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가 있고(서봉자, 1983:59, 이길표, 1990 재인용; 이윤금, 1998), 행사 등 모임으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Leach & Braithwait, 1996).

따라서 가정행사는 사회질서 유지, 공동체 의식 확립, 소속감과 정체성 부여, 가족유대 강화, 세대간 연결, 자녀의 사회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가사노동문제, 가족 간 갈등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 3. 가정행사의 사회화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가정에서 행해지던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이 산업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대체되거나 경감되는 현상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 혹은 산업화라 한다(이기영, 1987). 가사노동의 사회화에는 재화에 의한 대체와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있는데(이기영, 1981), 최근에 와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서비스에 의한 대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문숙재·정지영, 1991).

가정행사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며 여성의 역할 없이 지속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여성은 취업으로 가정 외 생산활동과 가정 내 가사노동의 이중의 역할부담으로 그 동안 무보수 가사노동으로 이루어지던 가정행사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하나인 제 3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Pleck, 2000).

우리나라의 가정행사 사회화는 혼례행사가 효시로 서구화의 영향을 받아 서울에 천주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어(김시덕, 1995:429, 박혜인·조은숙, 2001, 재인용)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혼례행사가 외부기관인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서비스 대체가 일어났다. 이후 여러 가정행사는 산업자본주의의 영향 아래 대행기관과 업체가 등장하여 더 한층 사회화되었고, 이에 종교기관이 가정행사에 적극 가세하여 가정행사의 상품화와 상업주의화가 가속되었다(박혜인·조은숙, 2001). 이러한 가정행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사회화 기관은 예식장과 장의사로 혼례와 상례는 가정에서 대행업자로 거의 이전되었다(두산세계대백과 사전, 2002)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우리에게 비하여 일찍 시작되었다. 취업여성이 증가한 1970년대에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가사와 취업이라는 이중역할에 부담을 느끼고 가정행사에 관련된 노동을 감소시켰다. 즉, 가정행사를 가정내적으로는 남편, 자녀, 손님 등 가족원이나 행사 참여자에게 노동을 분담시키거나 외적으로는 외부시설의 서어비스로 대체시키는 방안으로 행사 관련 가사노동을 줄였다. 그리하여 가정을 근거로 하던 행사는 20세기 후반에는 외부시설로 이전되는 경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Pleck, 2000).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변화와 여성의 취업은 가정행사 사회화에 기여하는 요인인데 이러한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행사 사회화 시 가족관계가 강화되고 가사노동 및 그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다. 즉, 가정행사를 위해 구매한 상품과 서어비스는 행사에 사용되어 가족관계를 강화시키는 촉매제로 사용되므로(Pleck, 2000) 궁극적으로 가족관계 강화에 기여한다. 또 가족 행사시 의식을 함으로써 가족 단란시간이 확보되어(이기준 외, 1989) 가족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경우의 가사노동이 감소되며 시간이 절감된다.

반면 가정행사 사회화 시 단점은 가정의 기능상실 및 소멸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다. 과거에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생활이 전개되었으나 점차 사회화되면서 가정의 기능이 급격히 상실되며 궁극적으로 가정의 실질적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길표(1989)는 지적한다. 이는 생일행사를 가정이 아닌 외부 시설에서 할 경우 정성이 없는 형식적 잔치로 여긴다는 김계동과 이영호(1996)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볼 때 행사의 외부화는 가정기능의 상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가정행사를 위한 상품과 서어비스의 구매 시의 경제적 부담 문제(문숙재, 정지영, 1991)도 무시할 수 없으며 단점으로 지적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이길표, 1989; 이정우, 김명나, 1990; Cheal, 1988; 宮崎祐子, 1992)를 토대로 설문을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한 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친척과의 교류정도, 가정행사 수행(전통행사, 탄생행사, 현대가정행사의 20가지)에 대한 문항, 가정행사 수행의식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행사 수행 관련 문항은 수행실태와 사회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행사에 대한 수행여부와 수행할 경우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고에서의 가정행사 사회화는 서비스에 의한 대체로 행사가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가정행사 수행 의식 문항은 수행실태의 질문 문항과 동일하며 어머니용과 딸용으로 별도 구성하였다. 가정행사에 대한 의식은 각 가정행사별로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꼭 지내고 싶다'에 4점, '될 수 있으면 지내고 싶다'에 3점, '지내도 되고 지내지 않아도 좋다'에 2점, '지내고 싶지 않다'에 1점을 주어서 점수가 4점에 가까울수록 행사를 하려는 의식이 높고, 1점에 가까울수록 그 의식이 낮음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조사대상은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생활이 비교적 안정기에 있는 자녀 대학교육기 가정의 주부와 여대생 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대상을 선정한 근거는 가족생활주기 상 중년 가족은 행사에 깊이 관여하며(Wolin & Bennett, 1984), 대학생 자녀의 부모는 가정행사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기(Fiese, 1992; Meredith, Abott, Lamanna & Sanders, 1989) 때문에 가정행사 파악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가족모임과 친족유대에서 보다 책임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여성인데 특히 40, 50대의 비중이 크므로(Leach & Braithwaite, 1996), 조사 대상인 여대생과 어머니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며

가정행사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게 되므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 딸은 가정에서 생활문화의 계승자로 딸의 행사 의식에 따라 앞으로의 행사 수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대간 의식차이를 비교하고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여대생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유의적 표집방법에 의해 서울소재 H대학교 가정대학에 재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여대생 딸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선정하였는데 3, 4학년의 비율이 1, 2 학년보다는 다소 많았다.

자료 수집은 시대 변화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1992년 9월과 2002년 10월의 2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은 두 연도 모두 동일하다. 질문지 배부는 여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어머니용과 딸용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 가정에서 작성하도록 하였다.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가정행사 수행 문항은 어머니가 작성하고, 가정행사 의식문항은 어머니와 여대생이 독립적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1992년 자료는 9월 중에 배부한 150부 중 103부(68.7%)를, 2002년 자료는 10월 중에 배부한 145부 중 91부(62.8%)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 중 가정행사의 의식 부분은 어머니용과 딸용으로 나누어 한 가정에 배부하여 2장의 질문지가 같이 회수되지 못한 가정과 부실 기재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율이 낮게 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 t-test 등을 하였다. 1992년과 2002년의 행사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고, 10년간의 행사 수행의 차이와 사회화경향은 교차 분석을 하였다. 또 세대간 가정행사의 의식의 차이는 1992년과 2002년의 어머니와 딸 간에, 1992년과 2002년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행사 의식, 딸과 딸의 행사 의식 간에는 paired t-test를 하였다.

IV.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가정의 특성

조사 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1>, 조사 연도에 상관없이 부부와 2~3인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많았으나 가족수는 2002년의 경우가 1992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50대 초반의 가장은 학력 정도가 높은 편이며 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기독교 가정이 다소 많은 특성을 보였다. 1) 월평균 소득은 1992년은 201만원 이상, 2002년은 301만원 이상이 50%이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992년 1,356,110원, 2002년 2,815,168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은 중류 이상으로 볼 수 있다. 친척과의 교류는 약 70% 이상의 가정이 3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2/3 가정이 집합주택에 거주하며, 반 이상이 31-40평형대 면적에 살고 있었다.2) 이로 보아 두 연도의 조사 대상은 여러 측면이 유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정행사의 비교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1992년	2002년
가족 수	4인 이하	42(40.8)	51(56.0)
	5인	40(38.8)	29(31.9)
	6인 이상	21(20.4)	11(12.1)
	평균	4.8인	4.5인
가족 유형	핵가족	86(84.7)	78(85.7)
	확대가족	16(15.7)	13(14.3)
월평균 소득	100만원이하(1992) 200이하 (2002)	12(11.8)	15(16.5)
	101-200만원(1992) 201-300만원(2002)	36(35.3)	26(28.5)
	201만원 이상(1992) 301만이상 (2002)	54(52.9)	50(55.0)
	평균	48.3세	49.8세
주부 연령	고졸이하	58(56.9)	57(62.6)
	대졸	39(38.2)	32(35.2)
	대학원 이상	5(4.9)	2(2.2)
남편 직업	생산직	15(14.5)	18(19.8)
	판매·서비스직	26(25.2)	22(24.2)
	사무직	39(37.9)	38(41.8)
	전문직	21(20.4)	12(13.2)
	기타	2 (2.0)	1 (2.0)
종교	기독교	36(35.0)	31(34.1)
	불교	24(23.3)	21(23.1)
	천주교	9(8.7)	10(11.0)
	무교	30(29.1)	22(24.2)
	2가지이상 종교	4(3.8)	7(7.7)
친척 교류 빈도	1개월 1회 이상	50(48.6)	41(45.1)
	3개월 1회 이상	30(29.1)	24(26.4)
	매년 1, 2회	23(22.4)	26(28.6)
주택 유형	단독주택	38(36.9)	32(35.2)
	집합주택	65(63.1)	59(64.8)
주거 면적	30평 이하	17(16.5)	18(19.8)
	31~40평	45(43.7)	39(42.8)
	41-50평	23(22.3)	22(24.2)
	51평 이상	18(17.5)	12(13.2)
조사대상 사례수**	1학년	35(25)	30(20)
	2학년	35(19)	35(21)
	3학년	40(28)	40(24)
	4학년	40(31)	40(26)
총사례수	배부(분석)	150(103)	145(91)

\* 분석에서 일부 무응답을 제외하여 항목별로 소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설문지 배부회수와 ( )안은 분석회수임

1) 15세 이상의 종교인구 비율은 전국적으로 무교 46.4%, 불교 26.3%, 기독교 18.6%, 천주교 7.1% 이나, 서울시는 무교 45.1%, 기독교 23.9%, 불교 20.1%, 천주교 9.3%로 다른 시도에 비하여 기독교의 비율이 높다(한국의 사회지표, 1999, 통계청).

2) 주택의 건평은 1990년과 2000년은 각각 19~29평 미만이 31.5%, 36.2%, 29~39평 미만이 10.8%, 10.2%, 39평~49평 미만이 5.2%, 5.0%, 49~69평 미만이 4.2%, 3.7%로 나타났다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2. 1992년과 2002년의 가정행사 수행 실태 비교

가정행사의 수행실태는 연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탄생 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현대가정행사, 전통행사의 순으로 행해지고 있어 탄생행사가 가장 중시된다.

1) 전통행사

전통행사 중 구정과 추석은 거의 보편적으로 행해지며 그 다음으로 제사, 대보름, 신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석가탄신일은 20%대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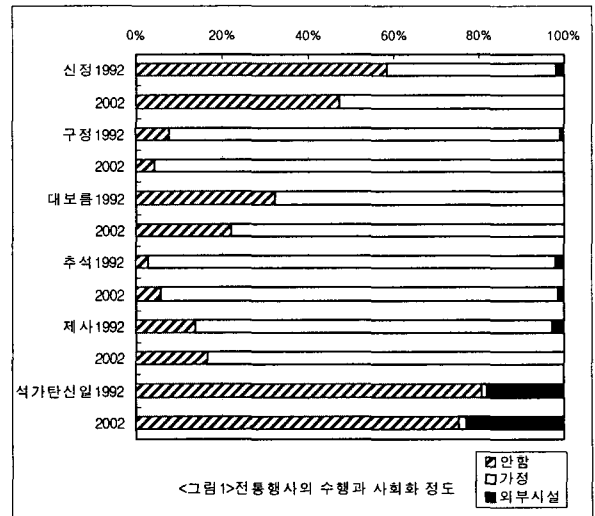
1992년과 2002년의 전통행사의 수행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구정, 추석, 제사, 대보름, 신정, 석가탄신일<sup>3)</sup>은 10년 기간의 경과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편리한 물질문화는 문화의 구조상 표층에 있어서 변화하려는 힘이 강한 반면 전통문화는 의식이라는 심층에 있어서 변화하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富田 守, 1991) 전통행사는 급격히 변화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이 중 설은 거의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양력(1992년 41.7%, 2002년 53%)과 음력(1992년 92.2%, 2002년 95.7%)의 설을 모두 지내고 있는데, 신정은 실제의 시간적인 새해로서, 구정은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심리적인 새해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양자를 다 지낸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새해에 이루어지는 두 번의 설 행사는 경제적 낭비 및 주부의 과중한 가사부담 가능성(조선일보, 1998, 12월 1일자) 문제를 파생시킨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1999년 이후 신정을 하루로 감축하여 한번의 설을 유도하였으나 이 후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사는 선행연구(김계동 외, 1997; 박혜인 외, 2001)에서도 존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기독교 가정의 추도식을 유교식 제사와 별도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대도시에서는 특정 종교 인구의 증감에 따라 제사의 수행정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석가탄신일 또한 종교에 좌우되는 행사로 불교 비율이 높은 경남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장상욱, 2003)에서는 수행 비율이 50%에 가까우나 불교 비율이 낮은 서울에서는 이의 반 정도로 나타나 종교인구에 따라 행사의 지속여부가 주목된다.

2) 탄생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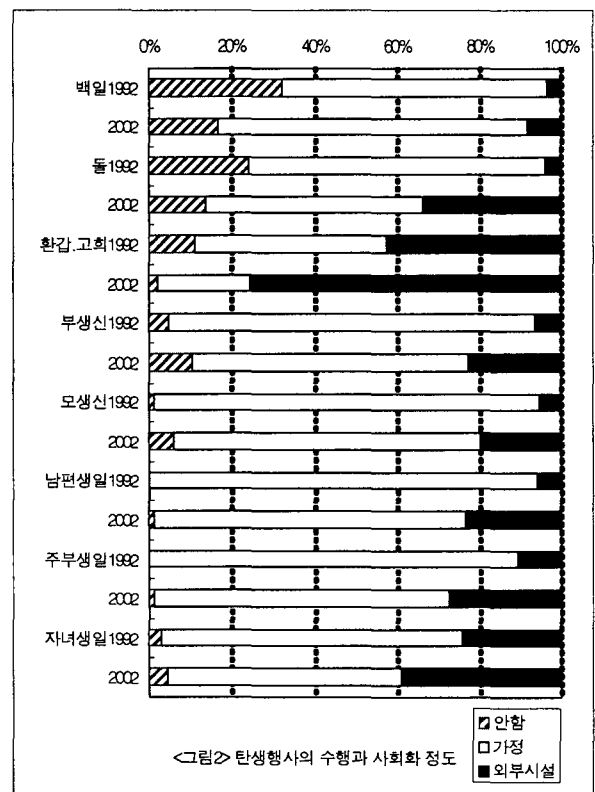
탄생행사 중 생일은 가족원 대부분이 90%이상을 지내며 수행 비율이 가장 높아 가정의 필수적인 행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환갑·고회는 1992년 89.9%, 2002년 97.8%로 그 수행비율이 매우 높으며<sup>4)</sup> 이어서 돌잔치(1992년 76%, 2002년 86.4%)와 백일잔치(1992년 67.9%, 2002년 83.3%)도 많이 하는데 돌잔치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행사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자녀

수의 감소(통계청자료에 의하면 평균 가구원수는 1990년 3.7명, 2000년 3.1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임)로 행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여겨지는데 가족 수 감소 추세와 더불어 앞으로 이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2년과 2002년의 탄생행사의 수행정도는 환갑·고회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x^2=10.82, p<.01$ ) 나머지 행사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갑·고회행사는 10년 동안에 더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원의 생일, 돌잔치, 백일잔치는 시간의 경과에도 차이가 없이 꾸준한 비율로 행해지고 있다.



<그림 1> 전통행사의 수행과 사회화 정도



<그림 2> 탄생행사의 수행과 사회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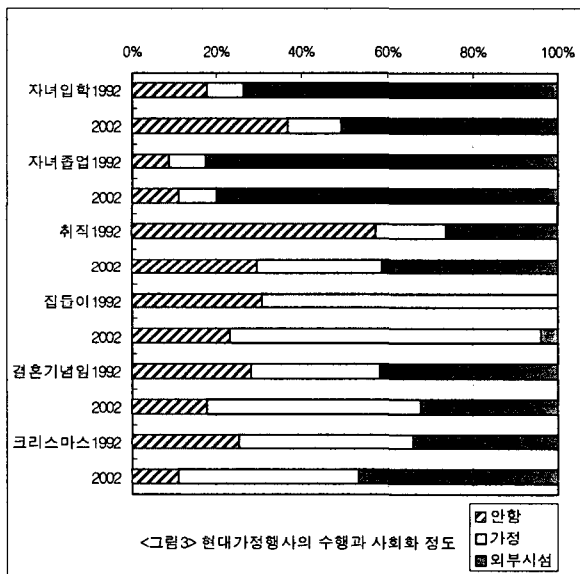
3) 신정( $x^2=1.008$ ), 구정( $x^2=.848$ ), 대보름( $x^2=2.298$ ), 추석( $x^2=.842$ ), 제사( $x^2=.302$ ), 석가탄신일( $x^2=.643$ )의 수행여부는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현재 부모가 생존한 가정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3) 현대가정행사

현대행사는 연도에 상관없이 자녀졸업(1992년 91.3%, 2002년 89.1%)이 가장 높다. 이어서 1992년에는 자녀입학(82.5%), 결혼기념일(72%), 집들이(69.4%), 취직축하(42.9%)의 순이나 2002년에는 결혼기념일(82.4%), 집들이(77%), 취직축하(70.6%), 입학(63.2%)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2002년에는 1992년에 비하여 결혼기념일과 취직축하의 순위가 높아져 부부행사와 취직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1992년과 2002년의 행사 수행 정도는 자녀입학과 취직행사에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입학 행사는 10년 동안에 감소하였으나( $x^2=7.47, p<.01$ ), 취직행사는 증가하였는데( $x^2=10.01, p<.01$ ) 이는 IMF 이후 발생한 대량 실업 경험 후에 인식된 취업의 중요성 때문으로 해석된다. 크리스마스는 연도에 상관없이 보편화되어(1992년 75%, 2002년 89.1%) 일반적인 가정행사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2002년에 지내는 정도가 더 높아 종교와 관계없이 존속될 것으로 보여 석가탄신일의 경우와 대비되는 경향을 보인다.



3. 가정행사의 사회화 경향

가정행사의 사회화는 상품대체가 아닌 외부 서비스에 의한 대체에 국한하여 파악하였다.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는 행사의 종류에 따라 집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에 차이가 보인다. 행사가 이루어지는 외부시설은 한식당, 양식당, 뷔페, 호텔, 카페, 호프, 패스트푸드점, 여행지 등과 사찰, 교회, 성당의 종교시설을 포함한다. 가정행사의 사회화 정도의 차이는 행사를 하지 않는 가정을 제외하고 행사를 하는 가정만 선택하여 가정과 외부시설의 수행에 대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sup>5)</sup> 사회화 정도는

5) 표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차분석의 표는 생략하고 X<sup>2</sup> 값과 유의도만 표시하였음

<그림 1, 2, 3>에 제시되었다.

1) 전통행사

전통행사는 연도에 상관없이 거의 사회화 되지 않은 행사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석가탄신일은 종교기관에서 약 20%대(1992년 18.4%, 2002년 23.1%)로 이루어져 다소 사회화 가능성이 보인다. 한편 미미한 비율이나 1992년에는 신정, 구정, 추석, 제사를 외부시설에서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장소는 음식점과 여행지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대생 자녀 가정에서의 전통행사는 사회화 경향이 보이지 않았는데<sup>6)</sup> 이는 전통행사는 '가정에서 지낸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김계동 외, 1997)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가문화의 발달과 가사노동의 사회화로 인하여 관광지에서 차를 지내거나 제사음식 배달업체에 주문해 제사상을 차리는 사례도 증가하나 아직까지는 자손이 손수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어(박명희 외, 2003) 사회화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가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질 경우는 이를 준비하는 가사노동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약 반수의 가정이 강도 높은 가사노동이 요구되는 설을 두 번 지내고 있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가정내적으로는 가사노동의 분담(보건복지부 설맞이 10대 수칙, 2003년 1월 28일), 가정외적으로는 외식(동아일보, 2000년 9월 9일자), 여행, 외출(국민일보 2002년 2월 15일자)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나 이 중 어떠한 것도 적절한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 채 매년 여성의 가사노동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필요성이 시사된다.

2) 탄생행사

탄생행사는 시간경과에 따라 사회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돌잔치( $x^2=13.49, p<.001$ ), 환갑·고회( $x^2=8.75, p<.01$ ), 부( $x^2=7.01, p<.01$ ), 모( $x^2=7.07, p<.01$ ) 생신, 남편( $x^2=9.75, p<.01$ )·주부( $x^2=8.88, p<.01$ )생일, 자녀생일( $x^2=4.68, p<.05$ )은 10년 동안에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가정에서 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돌잔치와 환갑·고회행사는 다른 행사에 비하여 사회화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행사는 많은 사람을 수용할 공간과 대량의 음식준비를 위한 집중적인 가사노동이 요구되어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행사를 수용할 뷔페식당 등 외부 시설의 증가가<sup>7)</sup> 하나의 유인 요인일 것으로 추측된다. 주부생일의 사회화율은 남편의 경우보다 높아 이 날의 가사노동을 줄여 주려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6) 신정( $x^2=2.189$ ), 구정( $x^2=.710$ ), 추석( $x^2=.053$ ), 제사( $x^2=1.893$ ), 석가탄신일( $x^2=.100$ )의 사회화는 1992년과 2000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7) 돌잔치의 외식 산업규모는 연간 2000억으로 근래 급증하여(조선일보, 2002년 2월 20일자) 행사의 사회화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배려로 해석된다.

탄생행사를 하는 장소는 돌잔치와 환갑·고회는 주로 한식당, 양식당, 뷔페, 호텔이며 생일은 부부의 경우는 식당이 일반적이었으나, 자녀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패스트푸드점, 호프집 등지에서도 이루어져 세대별 선호장소가 다르다. 가족원의 생일은 집에서 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외부시설에서 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사회화되고 있는데 특히 주부생일 행사 시 그 증가폭은 매우 컸으며, 자녀의 생일 행사는 사회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3) 현대가정행사

현대가정행사 중 결혼기념일을 제외한 다른 행사의 사회화 정도에는 두 연도 간 차이가 없었다. 결혼기념일은 10년간에 외부에서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chi^2=4.57, p<.05$ ), 입학, 졸업, 취직은 변함없이 대부분 외부에서 이루어져 확실히 사회화된 행사로 보인다. 집들이는 거의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집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하는 행사이므로(김계동, 이영호, 1997) 집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된다. 집들이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집보다 외부시설에서 하는 비율이 훨씬 증가하였다. 크리스마스는 시간의 경과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집과 외부 시설의 비율이 비슷한데 행사장소는 음식점, 패스트푸드, 종교기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종교행사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일반적인 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 4. 가정행사의 수행에 대한 세대간 인식 비교 및 변화

가정행사에 대한 1992년과 2002년의 어머니와 딸 집단의 행사 의식을 살펴보고 어머니와 딸 간의 행사의식 및 시간경과에 따른 행사의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 1) 어머니와 여대생 딸 집단의 가정행사 의식

어머니와 여대생 딸의 가정행사에 대한 수행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각 행사의 수행 의식에 1~4점까지 점수를 주고 평균을 내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역별 평균을 보면 어머니 집단은 연도에 상관없이 탄생행사(1992년 3.52, 2002년 3.58)를 가장 지내고 싶어 하며, 이어서 현대행사(1992년 3.11, 2002년 2.95), 전통행사(1992년 2.95, 2002년 2.92)의 순으로 전통행사를 지내려는 의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여대생 딸 집단도 탄생행사(1992년 3.43, 2002년 3.55)→ 현대가정행사(1992년 3.23, 2002년 3.10)→ 전통행사(1992년 2.70, 2002년 2.57)의 순으로 어머니 집단과 마찬가지로 전통행사 수행의식 점수가 낮아 어머니 집단과 같은 경향이다. 두 집단 모두 탄생행사를 수행하려는 의식이 높아 이 행사를 가장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전체 행사 중 꼭 지내고 싶어 하는 행사(4점 만점에 3.5점 이상)는 어머니 집단은 1992년 추석, 구정, 가족원 생일, 졸업이며,

2002 년의 경우 이에 더하여 돌과 환갑·고회를 꼭 지내고 싶어 한다. 딸 집단은 연도에 상관없이 추석, 부부와 자녀생일, 졸업, 어버이날을 꼭 지내고 싶은 행사로 하고 있다. 반면 지내고 싶지 않은 행사(4점 만점에 1.5점 이하)는 어머니집단은 없으나 딸 집단은 연도에 상관없이 석가탄신일을 꼽아 이 행사의 지속여부가 주목된다.

각 영역별 세부 행사를 살펴보면 먼저, 전통행사는 어머니 집단은 추석이 가장 높고, 이어서 구정이며, 다음으로 제사, 대보름, 신정, 석가탄신일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양대 명절인 추석과 구정은 지내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하나 신정은 지내도 되고 지내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에 가까웠으나 석가탄신일을 지내려는 의식은 가장 낮았다. 딸 집단의 수행의식 점수를 보면 역시 추석과 구정의 점수가 가장 높고, 이어서 제사, 대보름, 신정, 석가탄신일의 순으로 어머니 세대와 순서가 같으나 전반적인 점수는 낮은 편이어서 이의 수행 의지는 다소 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탄생행사는 두 집단 모두 연도에 상관없이 가족원의 생일을 꼭 지내고 싶어 하는데 대체로 부부의 생일을 중시하고 다음이 자녀생일, 부모생일의 순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혈연 쪽으로 의식이 더욱 강하다. 이어서 부모 환갑·고회 행사의식이 가장 높고, 이어서 돌잔치, 백일잔치의 순으로 백일잔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필수적인 행사가 아니기(박혜인 외, 2001)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가정행사에서는 어머니 집단은 두 연도 모두 자녀의 대학 졸업 행사를 하려는 의식이 강하다. 이어서 1992년은 입학, 결혼기념일, 취직, 집들이의 순이나, 2002년은 결혼기념일, 입학, 취직, 집들이의 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딸 집단은 1992년은 대학졸업을 가장 중시하고 이어서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입학, 취직, 집들이 순이나, 2002년은 결혼기념일, 크리스마스, 취직, 입학, 집들이의 순으로 이 중 취직 행사의 수행의식 점수가 더 높아졌다. 딸집단은 연도에 상관없이 결혼기념일과 크리스마스를 중시한다.

### 2) 어머니와 딸 사이의 행사 수행의식의 차이

어머니와 딸 사이의 행사 의식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도에 상관없이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어머니와 딸의 가정행사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대체로 전통행사와 탄생행사 수행의식은 어머니 집단이 딸집단 보다 높고, 현대가정행사의 수행의식은 딸 집단이 어머니 집단보다 더 높아 세대간 가정행사 수행 의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행사 수행의식은 1992년은 구정, 제사, 대보름, 석가탄신일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p<.001$ ), 추석( $p<.01$ ), 신정( $p<.05$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 집단은 전통행사를 하려는 의식이 딸 집단보다 높았다. 2002년에는 신정을 제외한 전통행사 의식에서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집단은 신정을 제외한 전통행사를 하려는 의식이 딸 집단보다 더 높으나 신정에서는



<표 2> 가정 행사 수행의 세대간 의식 비교

	행사 명	1992 년			2002 년		
		어머니	딸	t 값	어머니	딸	t 값
전통 행사	신정	2.38(1.19)	2.18(1.15)	2.601*	2.32(0.96)	2.23(0.88)	1.044
	구정	3.73(0.65)	3.38(0.82)	5.200***	3.71(0.65)	3.50(0.75)	3.078**
	대보름	2.78(1.14)	2.44(1.14)	4.387***	2.87(0.82)	2.30(0.78)	7.200***
	추석	3.85(0.51)	3.73(0.59)	2.935**	3.75(0.65)	3.53(0.83)	3.356**
	제사	3.33(1.06)	2.78(1.16)	6.520***	3.15(1.13)	2.55(1.14)	6.835***
	석가탄신일	1.84(1.18)	1.46(0.72)	3.943***	1.78(1.14)	1.43(0.76)	4.013***
	평균	2.95(0.43)	2.70(0.48)	7.569***	2.92(0.48)	2.57(0.48)	9.450***
탄생 행사	백일잔치	3.17(1.19)	2.97(1.22)	2.874**	3.30(0.86)	3.16(0.90)	1.890
	돌잔치	3.22(1.18)	3.08(1.19)	2.054*	3.55(0.77)	3.36(0.86)	2.757**
	환갑·고희	3.29(1.15)	3.16(1.14)	1.875	3.63(0.72)	3.47(0.88)	2.106*
	아버지 생신	3.47(1.05)	3.23(1.07)	5.070***	3.54(0.89)	3.41(0.90)	2.844**
	어머니 생신	3.62(0.89)	3.40(0.92)	3.555**	3.64(0.77)	3.46(0.81)	3.621**
	남편 생일	3.83(0.45)	3.92(0.27)	-1.993*	3.64(0.64)	3.85(0.40)	-3.198***
	주부 생일	3.80(0.47)	3.92(0.27)	-2.514*	3.64(0.65)	3.88(0.32)	-3.680***
	자녀 생일	3.79(0.44)	3.80(0.47)	-.228	3.56(0.68)	3.60(0.65)	-.686
평균	3.52	3.43	2.806**	3.58(0.51)	3.55(0.50)	1.042	
현대 가정 행사	입학	3.45(0.79)	3.39(0.82)	.884	2.94(0.84)	2.82(0.90)	1.380
	졸업	3.63(0.62)	3.61(0.62)	.470	3.53(0.70)	3.51(0.62)	.307
	자녀취직	3.11(0.81)	3.04(0.88)	1.186	2.86(0.88)	2.87(0.87)	-.152
	집들이	2.63(1.01)	2.48(1.00)	2.096*	2.66(0.80)	2.53(0.79)	1.999*
	부부결혼기념일	3.24(0.82)	3.46(0.73)	-2.372*	3.08(0.87)	3.44(0.79)	-4.023***
	크리스마스	2.64(0.95)	3.42(0.88)	-8.870***	2.79(1.01)	3.49(0.77)	-6.956***
	평균	3.11(0.45)	3.23(0.44)	-3.63***	2.95(0.53)	3.10(0.46)	-3.026**

\*p<.05 \*\*p<.01 \*\*\*p<.001

어머니와 딸 집단은 모두 지내도 좋고 지내지 않아도 좋은 행사로 인식한다. 이로 보아 세대간 전통행사의 의식은 10년이 경과하여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탄생행사 수행의식은 1992년에는 부 생일(p<.001), 모 생일과 백일(p<.01), 돌과 부 생일과 모 생일(p<.05)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는데 어머니는 부생일과 백일, 돌잔치를 하려는 의식이 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부생일은 딸집단의 의식이 더 높아 세대간 중시하는 행사의 차이가 보인다. 2002년에는 어머니 집단은 돌, 환갑·고희, 부모생일을 더 하려는 반면 딸 집단은 부부 생일에서 두드러진 의식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자녀 생일의식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보이지 않아 모두 행하려는 의식이 높다.

현대 가정행사에서는 1992년에는 결혼기념일(p<.05)은 딸 집단의 수행의식이 높았고 집들이(p<.05)는 어머니의 행사 수행의식이 높다. 2002년에는 결혼기념일에서 두드러진 차이(p<.001)가 있었는데 딸 집단의 수행의식이 어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집들이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의식이 더 높았다. 크리스마스는 세대간 차이가 연도에 상관없이 현저하여(p<.001) 세대간 의식차가 가장 두드러진 행사로 딸 집단의 수행의식은 어머니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 세대 차이를 많이 보이는 행사이다.

3) 세대별 연도 간 행사 수행의식의 차이

1992년과 2002년의 어머니 집단끼리, 딸 집단끼리 행사의식

의 차이를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표 3> 가정 행사 수행의 의식 변화

	행사명	어머니			딸		
		1992	2002	t 값	1992	2002	t 값
전통 행사	신정	2.31	2.35	-.233	2.15	2.22	-.615
	구정	3.72	3.71	.127	3.38	3.48	.933
	대보름	2.88	2.90	-.078	2.45	2.28	-1.156
	추석	3.86	3.73	1.343	3.71	3.55	-1.422
	제사	3.30	3.10	1.054	2.82	2.53	-1.566
	석가탄신일	1.79	1.78	.070	1.46	1.47	.098
	평균	3.21	3.16		2.90	2.81	
탄생 행사	백일잔치	3.19	3.30	-.611	3.00	3.17	1.081
	돌잔치	3.19	3.53	-2.101*	3.09	3.39	1.970
	환갑·고희	3.30	3.61	-2.122*	3.18	3.48	2.009*
	아버지 생신	3.53	3.53	.000	3.23	3.43	1.412
	어머니 생신	3.63	3.61	.127	3.36	3.48	1.000
	남편 생일	3.87	3.64	2.989*	3.92	3.83	-1.812
	주부 생일	3.83	3.63	2.298*	3.92	3.84	-1.621
	자녀 생일	3.84	3.56	3.233**	3.76	3.63	-1.536
평균	3.74	3.60		3.64	3.64		
현대 가정 행사	입학	3.52	2.94	4.594***	3.35	2.80	-4.021***
	졸업	3.65	3.53	1.136	3.58	3.54	-.476
	자녀취직	3.18	2.86	2.338*	3.05	2.87	-1.277
	집들이	2.70	2.67	.173	2.48	2.48	.000
	부부결혼기념일	3.20	3.08	.943	3.44	3.43	-.090
	크리스마스	2.57	2.82	-1.680	3.36	3.49	1.096
	평균	3.14	2.98		3.21	3.10	

\*p<.05 \*\*p<.01 \*\*\*p<.001

어머니 집단과 딸집단은 전통행사에 대한 의식에서 10년 기간에도 변함이 없으나 입학( $p<.001$ )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현저히 낮아졌고 이어서 자녀생일( $p<.01$ ), 부부생일( $p<.05$ ), 취직( $p<.05$ )도 다소 낮아진 반면 환갑·고회와 돌잔치( $p<.05$ )의 수행의식은 높아졌다. 이에 대해 딸 집단은 입학( $p<.001$ )의 수행의식은 현저하게 낮아졌으나, 환갑·고회에서는 높아졌으며( $p<.01$ ) 이외의 행사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기성세대인 어머니 집단은 일부 행사에서 의식 변화를 보여 10년 동안 행사의식의 변화가 생겼으나, 딸 집단은 입학과 환갑·고회를 제외한 모든 행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간 경과에도 대체로 수행의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 가정에서 가정행사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통해 가정행사의 계속 여부, 사회화 경향, 세대간 행사 의식의 변화 및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도시 여대생 가정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행사는 양대 명절인 구정과 추석, 탄생일, 환갑·고회, 졸업축하 행사가 있으며 근래 서구적 행사인 크리스마스의 수행비율도 상당히 증가하여 앞으로 보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환갑·고회와 취직행사는 10년 전에 비하여 그 비율이 증가한 반면 입학행사는 감소하였다. 그 외 행사는 10년간 변함없이 수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고수될 것이다. 이로 보아 대도시 여대생 가정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행사가 지속되는 한편, 크리스마스, 졸업, 취직 행사 등 현대가정생활에서 중시되는 행사도 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정행사가 건전한 가정과 사회의 결속 및 유지에 기여하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건전한 가정행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도시 여대생 가정의 행사의 사회화 경향은 현대가정행사가 가장 높은 반면 전통행사는 석가탄신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져 사회화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탄생행사는 전반적으로 두 연도 모두 외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경향이 뚜렷이 보이는데, 이 중 돌잔치와 환갑·고회 행사는 외부시설에서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므로 거의 사회화될 행사로 판단된다. 생일은 대부분 집에서 하였으나 근래 주부나 자녀의 생일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증가하여 다소 사회화 가능성을 보인다. 현대가정행사 중 짐들이는 집에서 하고 있었으나 자녀졸업과 자녀입학행사는 거의 외부에서 이루어져 사회화 경향이 농후하다. 크리스마스는 외부시설로의 수행비율이 증가하여 사회화 경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사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전통행사는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과 직결되므로 이를 줄여 줄

수 있는 인적·물적 측면에서의 가사노동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인적 측면에서는 개별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원 및 행사 참여자가 행사의 노동을 분담하는 방안과 아울러 이의 적극 참여를 위한 의식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적 측면에서는 개별 가정의 특성에 맞는 행사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계획과 선택이 필요하다.

한편, 탄생행사와 현대가정행사에서는 사회화 경향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행사 교육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측면에서는 가정행사 시 행사 계획과 이용 가능한 시설의 점검이 요망된다. 사회측면에서는 이러한 사회화에 대비하여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설에 대해 계층을 감안한 외부시설의 형태와 잠재적 수요 예측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대도시 여대생 가정의 행사 의식은 1992년과 2002년의 모녀세대 모두 전통행사는 추석과 구정을 지내려는 의식이 가장 높고 이어서 제사, 대보름, 신정, 석가탄신일의 순이다. 탄생행사는 두 집단 모두 가족원의 생일을 꼭 지내고 싶어 한다. 현대가정행사는 두 집단 모두 연도에 상관없이 졸업행사와 크리스마스의 수행의식이 높는데 딸집단은 어머니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딸 집단이 어머니 집단보다 행사의 수행의식 점수가 낮아 딸 집단의 수행의지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도시 여대생 가정의 어머니집단과 딸집단의 가정행사 수행의식은 연도에 상관없이 거의 전 행사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전통행사와 탄생행사 수행의식은 어머니집단이 딸 집단보다 높고, 현대가정행사는 딸집단이 더 높아 세대간 가정행사 수행의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기성세대는 전통행사를, 자녀세대는 현대가정행사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어머니집단과 딸 집단의 행사 수행 의식 차이는 장차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행사의 상호이해를 돕는 실천적인 교육이 요망된다. 이의 교육 대상은 부모와 자녀세대가 되어야 하며 교육형태는 매스컴,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고, 교육내용은 현대 가정에서 행사의 필요성 및 의의, 이와 관련한 가사노동 문제, 가정행사 계획, 사회화시의 장·단점으로 구성할 수 있겠다.

다섯째, 대도시 여대생 가정의 어머니집단의 가정행사 수행의식은 10년 동안 자녀생일, 부부생일, 입학, 취직에서 낮아진 반면 환갑·고회, 돌에서는 높아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행사의 의식이 다소 변화되었다. 반면 딸집단은 환갑·고회와 입학에서만 수행의식의 차이를 보여 그 동안 의식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두 세대 모두 환갑·고회를 지내려는 의식은 높아져 평균수명이 연장된 오늘날에도 인생에서 중대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부 가정행사의 수행의식에 변화가 보였으므로 가정행사 교육의 계획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1992년과 2002년의 10년 기간을 두고 대도시 여대생가정의 가정행사 실태, 사회화경향, 수행의식을 비교 연구한

에 있어 조사 대상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가정행사의 변화 및 사회화 연구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4년 07월 14일
- 심사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0월 13일

【참 고 문 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1). **한국민속의 세계 2-일상생활 의례생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김계동 · 이영호(1998). 현대주거에서의 의례관 별 의례행태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5), 83-92.

김외숙 · 이기영(2002). **가정생활과 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문숙재 · 채옥희(1986).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문숙재 · 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31-15.

문숙재 · 홍성희(1988). 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53-169.

박명희 · 김대년 · 김미영 · 김외숙 · 박미식 · 백희영 · 오세영 · 옥선화 · 이승신(2003). **한국의 생활문화-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교문사.

박혜인 · 신기영 (2001). 농촌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35-154.

박혜인 · 조은숙 (200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67-184.

용서석 · 우영희 · 지영숙 · 김양희 · 채옥희(1988). **현대사회와 가정문화**. 수학사.

이기영 · 김외숙(2002). **가사노동과 시간관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이기춘 · 이은영 · 이기영 · 황인경 · 김민자 · 김영옥(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2), 115-132.

이길표(1989). 도시주부의 가정경영관과 가정의례와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42-164.

이연숙 · 박경은(2000). 가사노동의 모녀간 세대전달. **대한가정학회지**, 18(2), 29-44.

이윤금(1998). 도시가계의 가정의례비 지출에 대한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9), 35-47.

이정우 · 김명나 (1990). 도시주부의 혼 · 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이정우 · 이은주(1992).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0(1), 179-198.

이차숙 · 임옥재(1988). **한국가정생활사**. 교문사.

장상옥(2003). 가정행사의 사회화 실태와 모녀 세대간 수행의식-진주시 여대생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41-50.

지식발전소(2002). **두산세계백과사전**.

통계청(1995, 2002). **한국통계연감**.

----- (2003).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국민 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조사**.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우리나라의 외식 소비실태와 문제점**.

허성미 · 한재숙(1993). 세시풍속에 대한 여성의 인식 및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3), 15-27.

경향신문(2003). **즐거운 설맞이 10계명-건강관리 수칙**. 2003. 1. 28.

문화일보(2003). **꽃 안 팔리는 스승의 날**. 2003. 5. 9.

국민일보(2002). **외식업계 명절특수 만각**. 2002. 2. 15.

조선일보(2000). **돌잔치 뷔페 신났네**. 2000. 2. 20.

중앙일보(2003). **Day 마케팅**. 2003. 3. 13.

宮崎祐子(미야자키 유코)(1992). **日本と韓國の都市住宅における空間構成に關する研究 -行事の行われ方を中心に-**. 大阪市立大學 修上論文.

富田 守(1991). **日本家政學會編. 生活文化論**. 朝倉書店. 11-12.

Belk, Russell W., Wallendorf, M. & Sherry, Jr, John F.(1989). The sacred and the profane in consumer behavior: Theodicy on the odysse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6, 1-38

Boassard, James H. & Boll, Eleanor S.(1950). **Ritual in family living**.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Cheal, David(1988). The ritualization of family 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1(6), 632-643.

Dickstein, Susan(2002). Family routines and ritual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41-444

Di Leonardo, Michaela(1987). The female worlds of cards and holidays: Women, families, and the work of kinship. **Signs: The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12(3), 440-453.

Fiese, Barbara H. & Kline, Christine A.(1993). Development of the family ritual questionnaire: Initial reliability and validation stud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3), 290-299.

Gibson, Richard(1999). "Company cafeterias create dinners to go." **Wall Street Journal**, January 13, B1, B4.

Howe, George W.(2002). Integrating family routines and rituals with other family research paradigm.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37-440.

Imber-Black, Evan(2002). Family rituals-from research to the consulting room and back again comment on the special se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4), 445-446.

Pleck, Elizabeth H.(2000). **Celebrating the family: Ethnicity, consumer culture, and family ritua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midt, Leigh Eric(1995). *Consumer rites: The buying and selling of american holiday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lin, Steven J. & Bennett, Linda A.(1984). Family rituals. *Family Process*, 23, 401-419.